

<하나님, 나의 하나님>

## 아름다운 향기

-주부편지 중에서-



미국 애리조나 주 플라그스텝이라는 지역의 인디언 부락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. 한국인 선교사의 안내로 추장집을 방문했는데, 놀랍게도 추장의 아내는 한국인으로 신실한 믿음의 집사님이었습니다.

20년 전, 경기도 화성 출신인 그녀는 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파견 나온 미군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.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너무 커서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었습니다. 남편이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해 가난이라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힘들었던 것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. 그녀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시부모와 시동생을 정성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 주었습니다.

이런 형수의 모습에 감동한 시동생은 형수와 같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서울에서 몇 년 체류하다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고 지금은 이웃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시부모도 그녀의 효성과 성실한 생활에 감동 받아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자기들도 믿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시동생 내외는 물론 시부모까지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이 가정은 그들이 사는 인디언 마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백인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백인들의 신앙을 거부해 온 인디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오늘날 수많은 전도방법과 선교전략이 난무하지만, 진정한 선교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진솔하게 묻어나는 믿음의 향기로 가능합니다. 불신자들은 논리적이고 유창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솔하게 배어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끌려옵니다.

[고린도전서 3:16 -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.]

### 엄마가 딸에게

결혼은

진실하고 성실한 사람과 하여라  
결혼은 하늘이 맺어주지만  
이 땅에서 잘 가꾸어 가야 한다

### 아버지가 아들에게

좋은 일이라면 열정적으로 해라  
세상의 큰일들은 대개  
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  
이뤄지고 있다

|  |  |  |
|--|--|--|
| 교회 목표<br>하나님만이<br>삶과 교회의<br>주인   | '2002년 교회생활: "가족으로 오신 예수님"<br><b>갈보리 교회</b><br>Calvary Presbyterian Church | 교회생활지침<br>누가 10:37<br>*자원함 - 섬김과 봉사<br>*의명성 - 명예 |
| 제 4권 21호   | 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  | 2002년 5월 26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☎ 520-9464/021-292-1639. ☒ 71 Khyber Pass Rd. (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) |  |  |

## 삼류 인생

어디서든지 향상에 터진다  
가업비 무료, 평생 사용료 무료

아~ 하나님 전데요.....



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 
휴대폰을 주셨습니다

일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, 이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,  
삼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.

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 
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줍니다.  
내게 하나님은 삼등입니다.

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삼등입니다.  
내 힘으로 한 번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  
에게 도와 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름  
니다. 내게 하나님은 삼등입니다.

거리(Distance)에서도 삼등입니다.

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,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,  
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.  
하나님은 삼등입니다.

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일등입니다.

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.  
내가 괴로워 할 때는 만사를 제쳐 놓고 달려오십니다.  
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 
흠뻑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.  
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일등입니다.

나도 하나님을 일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

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 
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 
일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.  
내게 일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일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.

하나님이 내 삶에 삼등이라면,

내 삶은 삼류 인생입니다.

<유머 하나> -견망중 아내- 집을 나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릴때 소리지르는 아내.  
"어머! 전기다리미 안 끄고 온것 같아요" 되돌아 가 봤지만 전기다리미는 꺼져 있  
었다. 이라기를 여러번.... 또 어느날, 집을 나서 고속도로를 한참 달릴때 소리지르  
는 아내. "어머! 전기다리미 안 끄고 온것 같아요"  
그때 남편은 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다.  
"여기 있소, 전기다리미!"

# 주 일 예 배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
| 영 광 송<br>Gloria                    | "Calvary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 같 이    |
| 참회의 기도<br>Confession Pray          |  |          |
| 용서의 선언<br>Proclaim                 |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<br>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| 인 도 자    |
| *찬 송<br>Hymn                       | 28장  | 다 같 이    |
| *성 시 교 독<br>Response Reading       | 13(시 3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*신 앙 고 백<br>Apostle's Creed        | 사 도 신 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 교 회 소 식<br>Welcome & Announcements |  |          |
| 찬 송<br>Hymn                        | " 364 장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 같 이    |
| 기 도<br>Prayer                      |  | 김교섭 장로   |
| 성 경 봉 독<br>Scripture Reading       | 누가복음 8:26-39(신 104)                        | 인 도 자    |
| 어린이 시간<br>Sunday School            |  |          |
| 성가대 찬양<br>Choir                    |  | 나무심자가성가대 |
| 설 교<br>Sermon                      | "호시탐탐 사탄"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김성국 목사   |
| 찬 송<br>Hymn                        | 388장<br>(마지막절은 일어서서)                       | 다 같 이    |
| * 헌 금 기 도<br>Offertory Prayer      | (기도후 착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 도 자    |
| 응 답 송<br>Response Song             | '믿음 더욱 굳세라'<br>(1절:남성성가대. 2절:다같이)          | 다 같 이    |
| 위탁의 말씀<br>Encouragement            |  | 인 도 자    |
| 축 도<br>Benediction                 |  | 김성국 목사   |

## <5.6월의 예배위원>

| 일자  | 주일기도 | 헌금위원 | 주 일 안 내 | Tea Time |
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26일 | 김교섭  | 박정자  | 최재학.김경숙 | 이광희.이재영  |
| 2일  | 김동숙  | 사카시다 | 권용일.이지영 | 전병주.정덕수  |
| 9일  | 김순자  | 신경화  | 박일영.김종건 | 권용일.김성국  |
| 16일 | 김영길  | 신영화  | 박정자.정희자 | 최재학.김교섭  |
| 23일 | 김종건  | 양경배  | 박상옥.이금선 | 김영길.김종건  |
| 30일 | 노은숙  | 윤형권  | 박병민.이기중 | 박상옥.박일영  |

|   |  |
|---|--|
| '2002년 교회표어<br>"가족으로 오신 예수님"(엡 5:21)<br><실천사항>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<br>*기도하는 부모 *닭살돋는 애정표현 | *3주간 예배,친교참석 이후에<br>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<br>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<br>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|
|---|--|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<주일예배>낮 12:00 | <수요예배>저녁 7:30 | <아동,학생>주일 낮 12시 | <청년부>토 오후 6시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
### ◀ 교 회 소 식 ▶

- \*오늘은 "이삭줍기"봉헌주일입니다.
- 1.교우소식  
\*날이 많이 추워졌고 감기로 몇일씩 학교 못간 자녀들도 있었습니다. 건강 조심하십시오  
\*출국:손승일 성도(윤한나 집사 남편). 월요일(27일).  
안원희 집사. 수요일(29일)  
\*한국방문 후 귀국:김반석 집사(24일)  
\*요양: 김태우(중등부 교사).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중입니다. 회복위해 기도합니다.
  - 2.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.  
\*남형진,이영숙 성도. 경나.현경 (2구역. 제2남녀 선교회) :  
☎ 620-7330 ☐ 22 Somerset Rd. Mt. Roskill
  - 3.봉헌:교우께서 방석을 봉헌하셔서 히터와 어우러져 춥지않은 겨울예배가 되었습니다.  
몸이 따뜻하듯 마음도 따뜻한 교회가 되는게 우리들의 바램입니다.
  - 4.남선교회 월례회: 5월 마지막주는 남선교회 정기월례회 달입니다.
  - 5.교사기도회: 화요일(28일). 저녁 7:30. 교회 초등부실(본당)
  - 6.작은 전기히터:사용치 않으시는 것 있으면 Donation 바랍니다(초등부용)
  - 7.주차장 공사중: 주차공간을 위해 주차장 공사를 진행중입니다.  
\*주차안내:교회옆 U-BIX 주차장도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\*\*\*\*\*

(올해 우리교회 표어인"가족으로 오신 예수님"과 잘 어울려  
메모해 두었던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)



"늙어가는 아내에게" 중에서 -시인 황지우-  
『.....

이제 내가 할 일은 아침 머리맡에 떨어진 그대 머리카락을  
침물은 손으로 짚어내는 일이 아니라  
그대와 더불어, 최선을 다해 늙는 일이라  
우리가 그렇게 잘 늙은 다음  
힘없는 소리로, 임자, 우리 괜찮았지?  
라고 말할 수 있을 때, 그때나 가서  
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때나 가서  
할 수 있는 말일 거야」

◆아이가 책을 읽다가.... "아빠, 사마귀를 왜 '(사)마귀'라 불러요?"  
"응, 좀 흉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나 보다"  
"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마귀라 불러요?"  
"???"

-때론 어른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아이들은 볼 수 있습니다-